

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, 생활공간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

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
2020. 7. 16.

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자연경관·공공디자인 등 6개 일반 부문과 1개 특별 부문(도시재생), 2개 경관행정 부문 등 모두 9개 부문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.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매년 주최하는 국토대전은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창의적인 경관·디자인 조성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한 경관 분야 국내 최고 권위,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.

이번 공모 결과 최근 3년 내 가장 많은 123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국토경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, 반지하·공원 등 생활공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. 접수된 작품은 7개 학회와 연구소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다.

먼저 대통령상에 선정된 ‘천사대교’는 1004개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 도서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FCM 주두부에 케이블 정착 방식을 도입한 세계 최장(주경간 길이: 510m) 고저주탑 사장교로서, 주변 섬의 형성과 어우러져 서해안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역경관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 또 국무총리상에 선정된 ‘청년이 만들어 낸 (공유의 공간) 반지하’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반지하 임대주택 6곳을 청년 건축가 주도로 청년코워킹공간, 공유주방, 실내가드닝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커뮤니티 활성화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.



대통령상 수상작 ‘천사대교(암해~암태) 제1공구 건설공사
출처: 국토교통부, (2020). 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...신안군 ‘천사대교’ 대통령상 수상, 7월 16일 보도자료.

2020 대한민국 국토대전 수상작

구분	부문	작품명
대통령상	사회기반시설	천사대교(암해~암태) 제1공구 건설공사(주디엔엔지니어링)
국무총리상	특별 부문	청년이 만들어 낸 (공유의 공간) 반지하(서울주택도시공사)
	자연경관	치마골천의 화려한 부활(한국토지주택공사)
	가로와 광장	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이천동 테마거리(대구 남구)
	주거·상업·업무단지	세종4-1 생활권 캐슬엔파밀리에 디아트(신동아건설(주))
	공공·문화건축물	남사도서관(주중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화 비엔피)
	공공디자인	밀양시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(경남 밀양)
장관상 (9)	사회기반시설	보령~태안(제2공구) 도로건설공사(코오롱글로벌(주), (주)삼보기술단)
	특별 부문 (도시재생을 위한 유희공간 활용)	신촌, 파랑그레 건립 및 운영(서울 서대문구)
	경관행정 협업	시민참여형 경관자원조사를 활용한 경관행정효율화(충남 당진)
	경관행정 사업	폐가를 주민활동 공간으로, 빈집을 마을수익시설로(경기 양주)